

라 궁극적 해방의 길을 지평(地平)을 넘은 데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확신이다. 이것은 악한 세력을 방치해두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닌 ‘힘’을 영원히 빼앗자는 것이다.

예수의 추종자들의 행태는 이러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따른 이가 그렇게 억울한 최후를 당하는데, 부활이라는 체험으로 죽음을 딛고 일어난 저들이 증오나 복수심에 사로잡힌 흔적은 전혀 없고, 역사에 새 장이 열린 것을 현실적으로 실감한 사람들처럼 오직 앞을 향해 매진할 뿐이었다.

4. 결론(마리아 찬가)

위의 해방자의 모습이 루가의 특수자료인 마리아의 찬가에 잘 대변되어 있기에 그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주께서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홀으셨다.
제왕들의 권력을 낮추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고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자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도다(루가 1, 51~53).

이것은 해방자 출현의 찬가이다. 나아가 이것은 궁극적 해방은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이다. 그러므로 동시에 예수는 바로 하느님의 대행자로 행위한 셈이다.

■ 『기독교사상』 1989년 12월호에 수록.